

高麗諸王의 西京巡幸考

秦 榮 一*

目 次

- | | |
|--------------|--------------|
| I. 序論 | III. 西京의 呪術性 |
| II. 西京과 北方政策 | IV. 結論 |

I. 序 論

高麗諸王의 西京經營과 巡幸은 지금까지 여러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

첫째, 太祖가 서경을 설치, 운영한 것은 風水圖讖說에서 開京의 「水德不調」를 裨補하여 고려 왕조의 基業을 연장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¹⁾

둘째, 고려왕조의 권력구조에서 서경 위치에 착안하여 태조의 서경경영은 그 곳에 왕실세력 기반을 마련하여 개경세력을 견제하려는 데에 있었다 한다.²⁾

셋째, 태조의 通婚圈을 분석한 결과, 태조의 기반인 海上勢力과 平山을 중심한 서경세력은 별개였다. 따라서 태조의 서상세력은 그곳의 우세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 서경세력에 대한 우대조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對後百濟戰에서 개경 밖에 안전한 군사적 배후지를 얻고자하는 목적도 있었다 한다.³⁾

1) 李丙燾, 「高麗時代の 研究」(改訂版), 亞細亞文化社, 1980.

2) 河炫綱, “高麗西京考”, 「歷史學報」35·36合輯, 1967.

3) 李泰鎮, “金致陽 亂의 性格: 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17, 1977.

* 人文大學 專任講師

상술한 여러 관점들은 전적으로 부정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는 하나 서경경영의 전체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전술한 관점들의 모순점들과 아울러 고려전기에서 서경경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특히 서경이 고려왕조의 北方政策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또한 당시 관념형태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밝히려 한다.

그리고 고찰대상의 시대적 범위는 태조부터 毅宗代까지 약 250년간(918-1170)에 한한다. 왜냐하면 분명한 공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경을 방문한 왕은 의종 이후에는 없기 때문이다.

II. 西京과 北方政策

고려 태조가 서경을 설치한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지금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그가 당시 민간 신앙의 하나였던 陰陽·地理·讖緯·秘錄에 비상한 信心이 있었으며 山川地理의 靈妙한 힘에 의하여 統三의 기원을 달성하려 한 데에 기인했다. 또한 개경·서경의 西京 지역에 層塔을 修建한 것은 地力을 裨補하여 그 혜택을 입으려고 한 것이었다. 즉 佛力과 地力에 대한 태조의 신앙심의 발로에서였다는 주장이 있다.⁴⁾

태조가 鄉里인 松岳山麓 滿月臺를 중심으로 하여 도읍한 개경 터는 그대로 풍수지리의 모든 조건을 갖춘 明堂地라고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지리도참설상 결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즉, 立地의 局面이 너무도 山岡으로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광활하지 못하고 北山諸谷에서 흘러나오는 溪水가 모두 중앙 한군데에 모이기 때문에 夏秋降雨期에는 水勢가 자못 거칠고 奔流가 급격하여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다.⁵⁾

개경의 이런 「水德不調」를 거시적으로 관점에서 보완하여 신홍 고려왕조의 주술적 완벽성을 기하려한 것이 서경 건설이었다. 서경은 「枕山帶水」 혹은 「負岡臨水」의 形勝을 이루고 있어 풍수지리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조는 서경에 分司制度, 학교 및 在城, 羅城 축조 등 오히려 개경을 능가하는 시설들을 갖춰 장차 이에 도읍하려는 의사를 가졌다 한다.⁶⁾

이런 관점의 1 서경 경영설을 비판하여 태조의 성경정책은 그곳에 토착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왕실세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여 개경의 호족세력을 견제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⁷⁾ 이 시각에 의하면 서경건설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왕권안정과 호족세력의 견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풍수도참설은 어디까지나 서경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4) 이병도, 전계서, pp.43~47.

5) 이병도, 전계서, pp.85~94.

태조의 개경 立都가 풍수학설상의 탁월성에 기인하였다 하며 그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책은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民音社, 1984, pp.197~213)이다. 여기서 개경 立都는 경제·군사적 실용면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6) 이병도, 전계서, 서경.95 및 pp.101~107.

7) 하현강, 「高麗西京考」, 「韓國史論文選集」(高麗篇), 一潮閣, pp.120~128.

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李泰鎭 교수는 태조의 서경정책과 통일전쟁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태조의 서경 우대책은 이 지역의 우세한 군사력 동원을 그 지역을 우대함으로써 보다 원활히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한다.⁸⁾

한편, 고려왕조의 지배세력의 出自에 착안하여 태조의 서경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설명하려는 논점이 있다. 즉 태조의 세력집단은 일차적으로 松岳 지방에서 형성된 것이었으나, 또한 그것은 新羅下代에 설치된 溟江鎭 지역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세력들은 태조 즉위와 더불어 平壤 개척·경영에 착수하였으며 나아가 淸川江 일대의 西北方 諸鎭을 설치함으로써 北進政策을 추진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이 내포하는 의미는 왕실세력 기반의 확립이나 고구려 舊疆의 회복에도 있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의미에서 邊境에 있어 大國土開發計劃으로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⁹⁾

역사적 事象이라는 것이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서경경영에 관한 상술한 관점들은 전부 부정될 수 없으며 각각 일면적 진실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고려왕조의 서경정책에 관한 여러 조건을 조사하여 거기에 어떤 요소가 지배적이었는지 혹은 그외에 다른 어떤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지를 지금부터 구명하고자 한다.

우선 상술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태조가 서경에 천도할 목적으로 서경 경영에 착수하였다는 점이다.¹⁰⁾ 여기서부터 논점을 출발시키면, 태조는 즉위 동시에 서경건설을 착수하였으며, 한편으로 淸川江 일대에 諸鎭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 조치는 태조가 향리인 松岳으로 천도하기 녀달 앞서 취해진 것이었다.¹¹⁾ 이러한 그의 북방정책은 그와 대치하고 있었던 後百濟보다도 북방민족들의 침략과 위협에 대한 방위가 신흥왕조인 고려에게 더 급선무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당시 흥기하고 있었던 契丹¹²⁾의 침입으로부

8) 이태진, 전제논문, pp. 74~78. 태조는 재위 13년 정월의 古昌郡 전투에서 승리를 계기로 하여 對 後百濟와의 생패전에서 우세를 짐하자 동왕 15년 天災異變을 구실로 하여 사실상 천도계획을 포기하는 뜻으로 서경경영의 대대적인 완화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논점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후삼국통일 이후 毅宗代까지 서경은 고려왕조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상술한 논점을 반박해 주기 때문이다.

9) 李基東, “新羅下代の 溟江鎭”, 『韓國學報』 4, 1976. 이 이외에도 태조집단의 北方的 出自를 다룬 논문들로서 金光洙,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史叢』 21·22 합집, 1977) 및 朴漢高, “高麗王室의 起源”(『史叢』 21·22 합집, 1977) 등이 있다. 전자에서 고려건국기의 溟西豪族은 平山의 溟江鎭을 중심한 군사적 여전에서 급성장한 세력으로 인근 개경세력과 연결되었다고 하며, 후자에서는 태조의 고구려 부흥·계승정책은 그의 조상들이 고구려·발해 계통의 후에서였다고 각각 주장한다.

10) 이병도, 전제서, p. 106; 하현상(1967), 전제논문, p. 134; 이태진, 전제논문, p. 74.

11) 『高麗史』 卷77. 百宮志(外職) 西京留守官條, “太祖元年 置平壤大都護府 遣重臣二人守之 置參佐四五人”.

또 태조가 弓裔를 축출하여 高麗를 개창한 것은 서기 918년 6월이었으며 다음해 정월에 鐵原에서 松岳으로 천도하였다.

12) 글안의 耶律何保機는 고려 건국 2년전에 황제를 칭하였다(서기 916).

터의 왕조 방위가 절실하였으므로 그 緩衝地帶로서 평양이 재건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술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태조가 즉위하자

平壤古都 荒廢雖久 基址尙存 而荆棘滋茂 藩人遊獵於其間 因而侵掠邊邑 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
屏 爲百世之利¹³⁾

이라 群臣에게 諭示한 사료가 있다. 즉, 평양 재건의 목적은 藩屏을 굳게하여 百世에 이익이 되
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한반도내의 後百濟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군사력을 소유한 글안이 침입하였을 경우, 새로 창조된 고려왕조는 순식간에 와해되리라는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조의 최우선 정책은 후백제와 한반도 정패전에서 우위도 문제
려니와 그 보다 북방에서 오는 거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긴박한 국제정세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배경의 소유자였다. 태조의 일차
적인 세력기반은 西海 中部 연안지대에서 성장한 해상세력이었다 한다.¹⁴⁾ 그의 이러한 배경은
무역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외에도 해외정 수집에서도 한반도내의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그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그 국제정보를 토대로 그는 신홍 고려왕조가 취할 정책의 우선순위가 제일차
적으로 北方에 있다고 결정했을 것이다. 결국, 북방으로부터 오는 글안의 군사침략의 위협이 태
조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북방 및 그 지대의 상징적 거점인 평양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이다.

글안족은 서기 916년 耶律阿保機에 의하여 통일되었고, 중국 본토의 석권을 위하여 그 배후에
있는 발해를 멸망시켰다(서기 926). 글안족은 고려왕조의 창업을 전후하여 그 침략의 족수를 만
주와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다.¹⁵⁾ 이렇게 전투가 습속화되고 호전적인 글안의 침략의 위협에 직
면한 태조의 정책은 제일차적으로 北方指向的인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그후 고려왕조의 대외
정책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태조는 9차에 걸쳐 서경과 諸化鎮을 巡幸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절박한 국제정
세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태조의 서경 순행의 기사를 「高麗史」에서 추출하면 다음과 같
다.

- 三年 是歲巡幸西京
- 四年冬十月 壬申 幸西京
- 八年春三月 幸西京
- 九年冬十二月癸未 幸西京 親行齋祭 巡歷州鎮
- 十二年夏四月乙巳 幸西京 歷巡州鎮
- 十三年夏五月壬申 幸西京
- 十四年冬十一月辛亥 幸西京 親行齋祭 歷巡州鎮

13) 「고려사」 태조 원년 9월 丙申條.

14) 이태진, 전제논문, p. 82; 김광수, 전제논문, p. 148; 李龍範, “處容說話의 一考察”, 「震檀學報」
32, 1969, pp. 18~19.

15) 이용범, “10-12世紀의 國際情勢”,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1, p. 222.

- 十七年春正月甲辰 幸西京 歷巡諸鎮
- 十八年秋九月甲午 幸西京 歷巡黃海州

태조는 서경순행과 더불어 반수 이상을 北方諸鎮의 방문을 겸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입장은 후백제와 한반도의 쟁패전을 벌이면서 한편으로 글안족의 침입 가능성이란 양면적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이 그의 치세 전반기에 거의 매해마다 그를 서경과 北方諸鎮으로 불러냈다는 것이다.

또한 태조는 서경을 고려왕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하였다. 서경에는 특수한 分司制度가 마련되었는데 중앙정부의 官制와 비슷한 시설이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그것들은 개경의 것들보다도 능가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 그외에 학교창설, 在城·羅城과 같은 大都城 축조는 당시 수도인 개경에는 없었고 서경인 평양에만 있었다.

상술한 설비들은 평양을 한층 권위있게 할 계획¹⁶⁾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그것은 한반도 통일 이후 평양에다 도움을 옮기겠다는 태조의 발언과¹⁷⁾도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경은 아직 잠정적인 수도에 불과했으며 이것을 확실히 서울로 확정지은 것은 光宗이었다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¹⁸⁾ 따라서 光宗代까지 서울로서 개경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향후 글안족의 움직임에 달려있었다고 하겠다.

태조의 상술한 언동은 그후 왕조의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歷代諸王의 서경 순행은 북방 민족의 한반도에서 침략 가능성과 연결되어 나타났다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태조의 對契丹觀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태조는 대내적으로 관대온후한 인품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있었는데 물론 정책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그의 성격이 “重幣卑辭”로 상징되었을 정도다.¹⁹⁾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안족에게는 최강경한 외교 노선을 택하고 있었다. 태조 25년 매우 저명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契丹遣使來遺繫繩五十匹 王以契丹嘗與渤海連和 忽生疑貳 背盟殄滅 此甚無道 不足遠結爲隣 遂絕交聘 流其使三十人于海島 繫繫繩萬夫橋下 皆餓死²⁰⁾

태조는 죄없는 짐승을 굶어죽게 하여 사절을 해도에 유배시키는등 거의 증오에 가까운 극단적인 처사를 하고 있었다. 이 조치는 그의 대내적 행적에²¹⁾ 비추어 볼 때 매우 이채를 띠는 것이

16) 이병도, 전계서, pp.104~107.

17) “頃完葺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고려사」, 태조 15년 夏 5월 甲申條).

18) 하현강, 전계논문, pp.133~134. 태조가 定宗까지 가변적인 상태에 있던 서울이 光宗 11년에 확정되었다 한다.

19) 하현강,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策”,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p. 30.

20) 「고려사」 태조 25년 冬4월조.

21) 「그는 평생 적대적이었던 甄萱이 저순해오자 극진히 우대하였다(“及至後稱萱爲尙父 授館南宮 位在百官之上 賜揚州爲食邑”, 「고려사」, 태조 18년 春3월조).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후백제인의 회유책이란 정책차원의 것이 아니었음을 다음 기사로 보아 알 수 있다. “以神儉僭位爲人所齎 罪輕二弟又且歸命 特免死賜官 於是甄萱憂鬱發疽 數日卒于黃山佛舍”(「고려사」 태조19년 2월조.)

었다. 우리는 태조의 이런 모순된 양면성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태조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유동적인 유목민인 글안과 농경 위주의 정착민인 고려는 애초부터 서로 융화할 수 없는 사회구조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호전적인 글안족은 기회가 닿는대로 고려를 침입해올 것은 분명하며 그런 침략성을 가진 글안과는 어떠한 장기적인 講和나 연맹이 불가능하다는 글안족의 속성에 관한 정확한 판단²²⁾에서 내려진 조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그후 3차에 걸친 글안족의 대거 침입이 증명해 주고 있다.

태조는 국교단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글안을 정벌하려는 의도마저 품었던 것 같다. 天福(後晉年號)年間(태조 19년-26년)에 西晉에 來朝했던 西域僧機羅가 고려에 온 일이 있었다. 태조는 그를 통하여 後晉과 결탁하여 글안을 협공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끝내 실현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²³⁾

태조의 글안족에 대한 경계심은 薨去하기 직전에 내린 訓要10條의 제4조에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²⁴⁾

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 유사에서 태조는 글안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글안족의 발흥에 식면하여 태조의 북방정책은 왕조의 北界線을 鴨綠江 이북으로 구상했던 적극적·능동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成宗代의 신하 崔承老가 올린 時務28條의 제1조에

我國家 統三以來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餉未免糜費者 以西北隣於戎狄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以此爲念 夫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²⁵⁾

이라고 지적되었든 데에서도 나타난다. 여기 馬歇灘은 압록강변의 한 지점이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태조의 서경경영은 개경의 호족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왕실세력의 부식이라든지 평양지역의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우대정책에도 기인하였지만 그 요인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의 서경정책의 제일의 목적은 북방종족, 특히 글안족의 침략위협과 그로부터 오는 위기에 대한 군사적 방어전략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조는 서경과 北方諸領을

22) 「高麗史節要」, 태조 25년조, “李齊賢曰 忠宣王嘗問於臣齊賢曰 我太祖之世 契丹遣橐駝 繫之橋下 不與芻豆 以餓而死(中略) 國君而有數十頭橐駝 其弊不至於傷民 且却之則已矣 何至餓而殺之乎 對曰 創業垂統之主 其見遠而其慮深 非後世之所及也(中略) 我太祖之所以爲此者 將以折戎人之譎計也”. 이 제현은 태조의 조치는 “折戎人之譎計”하는 데에 있었다하여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23) 朴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1, p. 257.

24) 「고려사」, 태조 26년 夏 4월조.

25) 「고려사」, 卷93, 崔承老傳. 역대 왕들의 西幸에 관한 李齊賢의 贊이 참고된다. 「고려사절요」 태조 26년 6월조, 李齊賢贊曰 我太祖即位之後 金博未賓 甄萱未虜 而屢幸西都 親巡北鄙 某意亦以東明舊壤爲吾家青氈 必席卷而有之 豈止操雞搏鴨而已哉”.

설치하였으며 그곳으로 9차 巡幸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그후 고려왕조의 대외정책을 일차적으로 규제하여 北方指向의 성격을 피제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

태조의 몰후, 서경에 관한 歷代諸王의 정책이 상술한 역사해석에 부합되는지를 차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제3대 定宗의 西京遷都가 문제가 된다. 定宗은 왕위 쟁탈전에서 西京鎭將 王氏廉의 무력을 빌어 적대자인 王規 세력을 제거하여 즉위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온존해 있는 개경세력에 불안을 느껴 왕실세력의 근거지인 서경으로 천도를 결심하고 그곳에 여러 시설을 서둘러 그의 봉어로 중지되었다 한다.²⁶⁾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생략될 수 있다. 태조 당시에 고려 영토는 북으로 확대되어 西北으로 通德(順川)·德昌(博川)·博陵(博川)에 城을 쌓았으며, 東北으로는 鐵甕(永興)에 축성하였다. 그리고 定宗은 光軍司를 설치하고 군사 30만을 뽑아 光軍이라 이름하였다. 이런 조치는 글안에 벼슬하던 고려 출신 崔光胤이 장차 고려를 침입하려는 글안의 야심을 알고 우리조정에 통보한 데서 취해진 것이라 한다.²⁷⁾ 당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정종의 서경전도 계획은 글안의 침략을 방어하려고 취해진 적극적 대응책이었으며 이것을 왕실기반지로의 이동 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6대 成宗은 8년 10월과 10년 10월 두 차례 西幸하였다. 첫 행차 한 달 전인 9월에 성종은

我太祖應期降世 敷德臨人 百郡來庭 三韓安堵 尊居南西 創置西京 差宗室之親 守咽喉之地 分司職務 名掌權機 每當春秋 親修齋祭 欲防戎虜 以固藩籬 憑茲平壤之雄都 固我祖宗之霸業 厥後聖神相繼 社稷以寧……²⁸⁾

이라 敎書를 내려 서경 巡幸의 목적이 咽喉의 터를 지켜 戎虜를 방어하는 데에 있다고 언명하였다. 또 동왕 9년 3월에 東·西北面に 兵馬使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에²⁹⁾ 연관시켜 볼 때 이 西幸은 북방측 방비를 목표로 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한편, 글안은 고려 成宗 5년 이후 대거 宋을 공략하고 있었으며 또한 宋과 定安國의 통교관계를 끊기 위해 성종 10년에 鴨綠江邊의 요지인 威寇·振化·來遠에 축성하였다. 그래서 定安國은 女眞 및 宋과의 교통은 두절되어 고립되었다.³⁰⁾ 이렇게 한반도 北邊에서 국제적 긴장감이 감돌자 성종은 서경에 행차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였던 것이다. 이런 우려는 西幸 4년 후 同王 12년 10월에 글안 東京留守 蕭遜寧의 대거 침략으로 현실화되었다. 이 침입 기마는 고려에 의하여 사전에 탐지된 듯하며 성종은 내침 직전 같은 달에 서경에 행차했으며 安北府까지 이르렀다가 내

26) 하현강, (1967) 전계논문, pp.128~133.

27) 「고려사절요」 정종 2년 秋條, “置光軍司 先是崔彥僞子光胤 以賓貢進士遊學入晉 爲契丹所虜 以才見用受官爵 奉使龜城 知契丹將侵我 爲書以報 於是命有司 選軍三十萬號光軍”.

28) 「고려사」 성종9년 秋 9월 己卯條.

29) 「고려사절요」, 성종 8년 3월조, “始置東西北面兵馬使(中略) 兵馬使赴鎭親授法鉞使專制關外”; 同王 9년 冬10월조, “置左右軍營.”

30) 박현서, 전계논문, pp.258~263.

침의 소식이 있자 급거 개경으로 귀환하고 있었다.³¹⁾

전술한 사신들로부터 추측하면 성종의 3차 西幸은 글안족의 내침 위협이라는 국제적 긴장관계와 밀접히 관련에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제7대 穆宗은 동왕 2년 10월, 동왕 7년 11월, 동왕 10년 10월 및 동왕 11년 10월 모두 4회에 걸쳐 西京巡幸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齋祭를 거행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내렸다.³²⁾ 여기에서 그 西幸 목적이 글안족이나 여진족의 위협과 상관되어 행해졌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북방의 일은 목종의 큰 걱정거리였던 모양이다. 그는 5년에 敎示에

役人戶而造佛寺 漫有經營 此雖皆從執奏而施行 豈非一人之失德 非但致軍中之怨讟 抑亦宇內之艱難
若有訓衆而練兵 若有彼侵而我伐 將何責勇將何得人 (中略) 特宣朕意 用示軍行 宜其所司 各成六衛軍
營 備置職員將帥 令其軍士彌除雜役...³³⁾

이라하여, 佛寺 경영에 군인들의 行役과 그로 인한 원망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만일 적의 내침시 장수를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으며 아울러 6군영을 설치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同王 5년 平虜鎮과 永豐鎮의 축성, 동왕 5년 5월 6衛軍營 설치, 동왕 6년 北界 西城 修築 동왕 8년 1월 東界鎮 溟縣 등의 축성 등 여러 방비시설이 동왕 9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목종의 4회 서경 幸行은 대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제8대 顯宗은 동왕 6년 3월 단 한번 서경에 행차했다. 이 거동도 金訓, 崔質 등의 武臣들을 정략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태조로부터 현종대까지 고려 왕들의 서경 순행과 북방민족의 내침 위협이라는 필자의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종대 왕의 즉위년 및 동왕 10년에 각각 글안의 聖宗과 蕭遜寧이 고려로 침입해 왔기 때문에 고려는 장기간 전쟁의 와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서경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 대신에 왕은 崔士威·庾方·張瑩·金審言·姜邯贊 등 즉, 側近重臣들은 西京留守 및 西北面行營 都統使로서 서경에 파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왕은 그의 대리로서 절대적 신임자인 重臣들을 임명함으로써 오히려 서경경영에 적극적으로 아니었는가 한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고려의 북방정책과 이를 상징하는 歷代諸王의 西京巡訪을 태조로부터 현종까지 백여년(918-1034)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차후 왕들의 西幸이 왕조의 북방전략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睿宗代 1회(周王 2년 11월) 뿐이다. 따라서 현종 다음의 제9대 德宗으로부터 毅宗까지 諸王의 서경 방문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간 국제적 상황을 보면, 글안은 고려에 대한 집요한 공략에도 불구하고 침략이 실패하자 특히 蕭排押의 군대가 참패하고 철퇴한 해(현종 10년) 9월 양국간에 사절교환을 재개시켜 침략정책을 철회했다. 향후 글안이 멸망하는 12세기 초까지 약 백년동안에 양국은 대체로 평화적 관계를 가졌다. 이에 따라 태조 이래 북방전략상 경영되었던 서경의 성격은 차차 퇴색되어 갔으며

31) 「고려사」 성종 12년 冬 10월 閏月 丁亥條, “幸西京 進次安北府 聞契丹蕭遜寧攻破蓬山郡 不得進 乃還”.

그 반면에 또 다른 서경의 성격이 점차 부각되어 갔다.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장을 바꿔 살펴보기로 한다.

Ⅲ. 西京의 呪術性

글안과의 관계가 일단락되자 다음에 고려왕조에 대두된 것은 女眞 문제였다. 여진족은 完顔部를 중심으로 점차 통일되어 갔으며 肅宗 9년 1월에 騎兵이 定州關外에 주둔함으로써 이에 고려군과 충돌하게 되었다. 숙종은 林幹, 尹瓘 등을 차례로 파견하여 축출하려 하였으나 피해만 볼 뿐 별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³⁴⁾

다음 16대 睿宗이 즉위하자 동왕 2년 10월 여진족을 격퇴하고자 서경에 幸行해서 尹瓘을 총 17만 대군의 元帥, 吳延寵을 副元帥로 삼는 임명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서 윤관등은 그해 12월 定州로 가서 비로서 여진 정벌을 위해 출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왕 및 윤관이 東界 군사기지인 安邊都護府를 놔두고서 왜 하필이면 서경에 가서 元帥 임명과 出征式을 행했는가이다. 이에 대한 한 해답으로 서경이 군사력의 집결지였기 때문에 군대인원 보충상 서경행차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경지대에 산재해 있는 諸鎭이 실제 군사력의 거점들이었으며 또 그들은 安邊과 安北의 兩都護府에 의해 統領되었으므로 서경은 京으로서 都護府 상위에 있었지만 몇 개의 屬縣을 거느렸을 뿐 실제로 州鎭은 갖지않아 군사력은 강하지 못한 상징적 존재였다.³⁵⁾ 즉 두 도호부가 북방 국경지대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서경은 다만 兩界의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따라서 위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그들은 日官의 奏請에 의해서 서경으로 갔다고 한다.³⁶⁾ 고려 개창이래의 최대총력전을 앞두고서 그들은 日官 정도의 말을 들어서 그러한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서경이 가진 또 하나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으면 예종의 이 처사와 그 후 왕들의 서경순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에의 해명은 태조의 서경경영에 소급된다. 태조가 붕어직전에 내린 訓要10條중, 제5조에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順調 爲我國地脉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³⁷⁾

32) 「고려사절요」 목종 7년 冬 11월조, “幸鎭京齋祭 杖杖罪以下 鑄鎭京田租一年 北邊沿路州縣半之 養耆老 加方岳州縣神祇勳號”.

33) 「고려사」 목종 5년 5월조 및 同書 同王 6년 2월조, “去年以來 屢見乾坤之變 又多邊境之憂”.

34) 박현서, 상계논문, p. 292이하 참조.

35) 李基白, “高麗太祖時의 鎭”,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81, p. 243.

36) 「고려사」 예종 2년 11월조, “幸西京時日官奏 宜御西京 以遣將帥 故有是行”.

37) 「고려사」 태조 26년 夏 4월조.

이라하여 서경이 한반도 지맥의 근본임을 천명하였다. 그는 山川에 내재한 어떤 힘, 특히 지맥의 근본에서 오는 어떤 神秘力 또는 靈威力을 빌어 새토이 개창된 왕조가 영속화될 것을 기원하고 있었다.³⁸⁾

이에 앞서, 태조는 3한 통일을 佛力에도 빌고 있었다. 그는 內奉卿 崔凝에게

昔新羅造九層塔 遂成一統之業 今欲開京建七層塔 冀借玄功 除群醜合三韓爲一家 卿爲我作發願疏³⁹⁾

이라 명한 일이 있었다. 개경과 서경에 각각 7층탑과 9층탑을 세워 그 공덕으로 3한 통일을 축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조는 개경보다도 서경의 주술성을⁴⁰⁾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서경의 신비력에 대한 태조의 이런 발언은 왕권안정과 豪族勢力의 견제에 필요한 서경경영을 불교 또는 지리도참설로써 합리화하는 데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⁴¹⁾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태조뿐만 아니라 그후 군왕들도 서경의 靈威力에 대한 신앙을 계속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成宗은 西幸 전에

憑茲平壤之雄都 固我祖宗之霸業 厥後聖神相繼 社稷以寧 或依前跡以遵行 或命近臣發遣(中略) 欲取十月言 邁遼城 行祖禰之舊規 布邦家之新命⁴²⁾

라고 教書를 내렸다. 여기서 서경은 패업완수라든가 사직안녕에 도움이 되는 神聖地域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서경에 대한 이런 주술적 신앙은 고려초기 뿐아니라 공식적으로 서경을 순행한 마지막 왕인 毅宗代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의종은 서경에서

朕聞鎬京 萬世不衰之地 後之王者 臨御于此 頒下新教 則國風清明 小民安泰 朕即政以來 萬機實繁 未暇巡御 今以日官所奏 來幸此都 將欲革舊鼎新 復興王化 將古聖勸戒之訓 及當時救弊之事 頒新令九條⁴³⁾

이라고 維新布告의 이유를 들었다. 또 同年 4월에도 宣旨를 내려

38) 「고려사」 태조 15년, 夏 5월 甲申祭, “諭群臣曰 頃完蕘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39) 「고려사」 卷92, 崔凝傳.

40) 본고에서 呪術(magic)이란 現世의 此岸의 목적, 이익을 어떤 超自然的 靈威를 매개로 하여, 또는 그것에 작용하는 것에 의해 해결, 실현하는 체계이다라고 이해해 둔다. 그리고 종교와 주술의 차이점은, 전자가 초월적 實在에 대하여 갖는 인간의 태도인데 비하여 후자는 매우 操縱的(manipulative) 성격을 갖는다 한다. T. F. O' Dea. *The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6). pp. 7~12참조.

41) 하현강(1967). 전제논문, p. 128.

42) 「고려사」 성종 9년 9월 己卯條.

43) 「고려사」 의종 22년 3월 戊子條.

西都乃祖宗巡御之地 自經乙卯之亂 國家多事 累年未得巡御 今欲舊染汚俗咸興惟新 亦將延基保業 乃幸是都⁴⁴⁾

이라 하였다. 의종대에는 서경의 주술성은 더 높아져서 그것은 왕조의 기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국가와 백성을 清明安泰케 할 수 있는 靈威있는 신성지역으로 관념되고 있었다. 특히 “與物更始” 할 수 있는 신성한 터로서 서경에서 그 목적이 왕조를 혁신, 중흥하려는 “惟新之教”가 포그되고 있었던 곳임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⁴⁵⁾

제10대 靖宗 이후의 서경순행의 목적은 더 이상 북방민족의 위협과 고려측의 대응이란 상관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당시대의 어떤 觀念形態⁴⁶⁾ 내지 意識總和에서 밖에 추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역사진행은 인간의 일체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리고 행위결정은 단지 정치권력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에만 의하지 않으며 거기에 반드시 개인들 또는 집단들의 관념형태를 매개로 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고려사회에 내재했던 서경에 관한 관념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정당히 평가하지 않으면 諸王의 西幸의 實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 문제는 고려왕조의 공동성을 대표하는 君王들의 성격과 기능과도 연결된다. 상기 사료들에 나타난 왕들의 행적에는 理性이 아닌 주술성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군왕의 의식, 관념도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민중의 관념형태에 규정되어 반영하고 있었을뿐이라고 생각된다.

하얏든 고려 왕들의 西幸은 당시 관념형태가 어떻게 왕조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주들에게 신념, 이용되었는가를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태조의 행적을 보면, “我國地脉之根本”이라든지 “冀憑地力平定三韓將都於此”라고 한 그의 언동에는 서경이 3한을 평정할 수 있는 “地力”을 갖고 있었다는 믿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곳은 우리나라 지맥의 근근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런 생각은 태조 자신의 독창이 아니었을 것이며 그는 단지 당시 기층사회의 관념형태를 매개하여 서경의 증대성을 백성대중의 의식 속에 영구히 심어놓으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고려인에게 공간이란 동질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공간중 다른 부분과는 이질적인 신성한 영역이 존재하며 또 거기에는 고려왕조가 여하한 문제도 풀 수 있는 靈威있는 힘이 숨어있는 곳이라고 믿어졌다.⁴⁷⁾

44) 「고려사」 의종 22년 夏 4월 乙亥條.

45) 이것 이외에 서경에서 반포된 유신포고의 예 : 「고려사」 예종 11년 3월 庚辰條, “今日日官所請 徙御西京 以頒新教 將以與物更始” : 同上書, 인종 5년 2월 戊午條, “今日日官之議 行幸西都 深省 既往之愆 冀有惟新之教 布告中外 咸使聞知” 등.

46) 여기에서 “관념형태” 또는 “관념”이란 용어는 당시 기층구성원인 농민의 신념, 이해 및 정신적 태도를 의미하며 논리적 敎理를 가진 사상체계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 M. B. Hamilton, 'The Elements of the Concept of Ideology', *Political Studies* XXXV (Butterworths, 1987) 참고.

47) 「고려사」 毅宗 23년 3월 戊子條, “御觀風殿下敎曰 鎬京萬世不衰之地 後之王者 臨御于此 頒下新教 則國清明 小民安泰(中略) 今日日官奏 來幸此都將欲革舊鼎新 復興王化”.

또한 태조는 “今欲開京建七層 西京九層塔 冀借玄功 除群醜 合三韓爲一家”라 하여 불탑이 서경의 주술성을 높여주는, 건조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불탑 조영을 통하여 한층 강화된 힘을 빌어 “統三”하겠다 하였을 정도로 서경의 地力에 관한 신심은 강했다. 불탑뿐만 아니라 궁궐도 신성한 터에 주술성을 더해 주는 것이었다. 妙淸의 亂 직후, 그의 일당인 崔京이 임금에게

階下信陰陽之至言 考圖讖之秘說 創大華之宮闕 象鈞天之帝都...⁴⁸⁾

이라 上表하였다. 대화궁은 天上의 帝都를 모방한 것이라 했다. 따라서 서경에 건축된 궁궐은 천상질서를 지상에 구현한 상징물이었으며 단순한 인간의 거주지가 아니었다.

이 신성지역에는 만물을 純化更始할 수 있는 신비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신앙되었다. 고려왕조의 維新布告는 대개 서경에서 또는 서경순행 직후에 내려지고 있었다. 한 예로서 仁宗은 서경에 행차하여

今以日官之議 行幸西都 深省既往之愆 冀有惟新之教 布告中外 咸使聞之 一日方澤祭地祇 四郊迎氣...⁴⁹⁾

이라 포고하였다. 서경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어떤 신비한 靈氣가 있는데 그는 이를 맞이하겠다고 하였다. 역대 諸王의 서경순행은 결국 신성지역인 서경에 回歸하여 그 곳의 힘을 빌어 왕조기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당시의 관념형태에서 설명될 수 있다.⁴⁹⁾

일단 서경에 관한 당시 관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경은 한반도 중심지⁵⁰⁾였으며, ② 거기에 건조된 寺院·궁궐등은 天上秩序의 地上具現이었으며, ③ 그곳에는 만물을 純化更始시킬 수 있는 靈威한 힘이 있으며, 그리고 ④ 고려 전기에 군왕들은 항상 신성지역으로 回歸하여 왕조를 更始하려는 경향을 갖었다고 생각되었다.

상술한 맥락에서 文宗이후의 新京, 離宮경영 및 순행등도 이해될 수 있다. 우선 文宗朝를 보면, 餅岳 長源亭을 비롯하여 南京 설치, 新宮 경영, 西京畿 설치 및 그 左右闕 축조등은 다 延基 시설들이었다.⁵¹⁾ 이들은 태조의 후삼국 통일의 해로부터 그 回甲이 되는 해에 왕조가 망한다는 讖說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경영되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⁵²⁾ 왜냐하면 文宗 10년을 전후해서 東女嶺과의 소충들을 제외하고 이렇다할 국내외의 문제가 없었으며 고려일대에서도 가장 안정된 王國의 平和期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宗代의 여러 시설들은 왕조가 곧 멸망한다는 참설과 이로 인한 위기감에서 벗어나 왕조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술성으로 인해 급거 경영된 것이었다.

48) 「고려사」 인종 5년 2월조.

49) 「고려사」 卷127 妙淸傳, “須數御西京 曠災集喜 以享無窮之業”; “削宮闕於大花勢 以延基業”.

50) M. Eliade, *The Sacred and Profane*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7) 및 T. F. O'Dea, op.cit에서 상술한 世界中心軸 개념이 잘 탐구되어 있다.

51) 이병도, 전제서, pp.138~146.

52) 「고려사절요」 문종 10년 12월조, “道說松嶽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丙申之歲 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 今金宗允等相地 構之於西江餅嶽之南”.

제 15대 肅宗은 金謂碑의 南京 천도 건의에 따라 동왕 9년 거기에 궁궐을 축조하고 행차하였다. 이 南幸의 근본 목적은 吉地의 地方을 빌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한다.⁵³⁾

그리고 이 순행의 배경으로는 숙종은 대내적으로 왕위계승전을 둘러싸 상당한 살륙을 자행했으며 대외적으로 女眞族 침입의 시기를 맞아 상당한 심리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南幸을 통하여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려 하였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태조 이래로 신성지역으로 믿어진 서경 대신에 남경을 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영든 서경이든 남경이든간에 거기에 내재한 주술성을 매개하여 국내외적 제문제 및 개인적 불안을 해결하려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仁宗朝에 와서는 서경과 거기에 영조된 궁궐의 상징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妙淸 집단의 요청으로 서경 大花勢에 궁궐을 창건하여 西幸한 인종은

因時乘變 不常厥居 自古而然 海東先賢有言 創宮關於大花勢 以延基業 今既相地 創造新宮 順時巡遊...⁵⁴⁾

이란 詔書를 내렸다. 대화세, 즉 고려 지맥의 근본에 궁궐을 세우면 왕조기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또 서경의 靈力은 고려 군왕의 존재자체를 관념적으로 부정하는 災異⁵⁵⁾를 미연에 방지하여 고려 왕업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다고 믿어졌다. 묘청 등은 왕에게

上京地勢衰 故天降災孽宮闕焚蕩 須數御西京 禳災集禧 以享無窮之業...⁵⁶⁾

이라 아뢰었다. 李資謙의 亂 때문에 개경 궁궐이 불타버려서 바로 그 때문에 재이가 빈발하므로 地力이 왕성한 서경으로 천도하여 재이를 물리치고 왕업을 무궁히 보전하자는 논리였다. 묘청 집단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런 왕실의 관념적 필요성에서 발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⁷⁾

서경의 주술성은 당시대인의 국제적 대외관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金謂碑는 숙종에게

53) 이병도, 전거서, pp.161~170.

54) 「고려사」 인종 7년 3월 庚寅條.

55) 災異란 사회·자연의 질서에서 자기 범주로부터 벗어난 事象을 의미하였으며, 또한 그것은 사회·자연의 「秩序」의 具現者로서 관념되었던 君王이 存在論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려사회에서 매우 중대시되었다. (拙稿, 「高麗前期의 災異思想에 관한 一考」, 邊太燮編,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pp.493~511).

56) 「고려사절요」 인종 6년 8월조.

57) 종래 妙淸 亂에 관해서는 주로 睿宗代로부터 성장해온 지방 토착세력을 배경으로 한 新進官僚群과 門閥貴族 사이의 대립·투쟁이 그 반란의 원인이라고 한다(金潤坤, 「高麗貴族社會의 諸矛盾」, 「한국사」 7, 국편위, 1981; 朴性鳳, 「高麗仁宗朝의 兩亂과 貴族社會의 推移」, 변태섭編, 전거서). 그러나 역사해석이 그렇게 간단하게 二分的 사회범주로 도식화될 수 없다(출고, 「妙淸亂에 관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pp.30~33).

道說記云 高麗之地有三京 松嶽爲中京 木覓壤爲南京 平壤爲西京 十一·十二·正月·二月住中京 三·四·五·六月住南京 七·八·九·十月住西京 則三十六國朝天...⁵⁸⁾

이라하여 남경에 천도할 것을 건의했다. 비록 3京중의 하나이지만 서경에 巡駐하면 36국이 고려에 스스로 來朝하리라 하였다. 또 仁宗代에 묘청 집단이 서경천도를 왕에게 진언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臣等觀西京林原驛地 是陰陽家 所謂大花勢 若立宮闕御之 則可并天下 金國執贄自降 三十六國皆爲臣妾...⁵⁹⁾

이라 예언했다. 서경 大花勢에 궁궐을 짓고 임어하면 고려에 稱臣을 요구해온 金國이 도리에 스스로 굴복해 온 것이며 아울러 36국도 그러한 것이라 하였다. 묘청 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서경의 신비력만 빌기만하면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서경은 온 천하를 제압할 수 있는 靈威한 터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왜 睿宗이 정벌 목적지에서 가장 근접한 군사거점인 安邊都護府로 직행하지 않고 서경에 우회하여 거기서 元帥 임명식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해명을 얻을 수 있다. 예종에게는 여진 정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술한 서경의 靈力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얏든 묘청 일파의 이런 주장은 현실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었지만 그런대로 역사적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그들은 모든 나라가 고려에 복속해오는 자국중심의 세계 질서상을 구상하였으며 그 중심을 서경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런 대외관은 사대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문벌귀족의 그것과 정면 대립하여 고려 역사상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주술성이란 비합리적이고 후진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일단 묘청이란 인격을 매개로 했을 때 문벌귀족의 보다 합리적이고 開明的으로 보이는 지배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전진적인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묘청의 난에서 확인된다.⁶⁰⁾

전술한 서경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사건이 毅宗代 있었다. 의종은 동왕 22년 3월에 西幸하고 있었는데, 이 행차는 당시 왕의 두 동생이 인심을 얻기 있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한다.⁶¹⁾ 이것이야말로 서경이 항상 왕조권력 구조상 왕실을 지지하는 세력 기반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는 주장이 있다.⁶²⁾ 필자는 이런 논점을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왕이 지방에 있다가도 중앙의 정변 소식이 있으면 급거 歸京하여 사태를 장악하는 법인데 의종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둘째, 묘청의 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살륙과 지위격하를 경험한 서경인들이 계속하여 고

58) 「고려사」 卷122, 金謂碑傳.

59) 「고려사」 卷127, 妙淸傳.

60) 출고 (1984), 전계논문.

61) 「고려사」 의종 22년 3월 丁丑條. “幸西京 時王弟翼陽平涼二侯顔得衆心 王擬有變 移御以避之”.

62) 하현강 (1967), 전계논문, p. 148.

려왕실에 호의적일 수 있었겠는가와 문제와 결국 두 王弟로 왕실의 일원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의종은 서경에서 아무런 실제적 조치를 하지않고 다만 大同江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⁶³⁾ 결국 이 행차는 서경의 신비력을 빌어 위급한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졌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또 여기에서 반포된 敎書에

朕聞鎬京 萬世不衰之地 後之王者 臨御于此 頒下新教 則國風清明 小民安泰(中略) 今以日官所奏 來幸此都 將欲革舊鼎新 復興王化……⁶⁴⁾

이라 그 목적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왕이 서경에 오기만 하면 “國風清明” 또는 “小民安泰”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에서 “復興王化”하겠다는 것이다. 의종 당시의 시대상황으로는 문벌귀족의 배타적 지배체제에서 오는 사회계층간의 갈등, 문무제도의 균형파탄등 많은 사회적 제모순이 격화되고 있었다.⁶⁵⁾ 그런데 의종과 그의 신하들은 사회적 알력등을 서경의 영위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의식은 가히 주술적이었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왕과 臣僚들의 주술적 의식은 고려왕조의 성격에 대하여 재검토를 필요하게 한다. 왕조 운영에서 권력의 주체는 주술로부터 해방된 그리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관료제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종의 서경순행에서 나타났듯이 관료제의 합리성은 통치수단과 기술면에서 그것이 있었지 관인층의 사상과 의식을 내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재이발생의 빈번함, 북방민족의 침략위협 및 왕조멸망의 참살 등 非日常的 영역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관료제적 질서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왕과 신하들은 어떤 초월적인 靈威力에 의존하여 왕조가 직면한 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고려 전기에 역대 제왕의 西幸은 이런 당시대의 관념 형태의 한 표현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왕들의 西幸을 통하여 당시 “군왕”의 한 성격을 밝히면서 본고를 끝맺겠다. 穆宗은 서경을 순방하여

幸鎬京 齋祭 赦流罪以下 養耆老 加方嶽州鎮神祇勳號⁶⁶⁾

이란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서 고려 군왕은 神祇에 加號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사회 질서 뿐만 아니라 자연질서의 體現者로서 관념되고 있었다. 따라서 왕들은 사회관리의 조직체제인 관료체제의 總括者로서 국가내적 권력의 정점에 존재할 뿐이 아니라 또한 자연적 神祇의 秩序의 형성자로서 국가외적 권위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왕”이란 인격은 국가기구제도 안에서만 조직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초월적 권위로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질서에 속하는 “方嶽神祇”에 勳號를 더할 권위를 갖고 있었다 생각되었다. 그리고 목종은 사회·자연의 양 질서를 매개하는 주술적 의식인 齋祭를 거행하였다. 서경에서 이런 神祇

63) 「고려사」 의종 22년 夏4월 癸巳條, “幸洪福寺 泛龍船於南浦 宴宰樞近臣”.

64) 『고려사』, 의종 22년, 3월조.

65) 변태섭, “武臣亂과 崔氏政權의 成立”, 『한국사』 7, 국편위, 1981, pp. 86~90 및 金潤坤, “貴族社會의 諸矛盾”, 상계서, pp. 27~86.

66) 「고려사」 목종 7년 冬11월 甲寅條.

加號 및 齋祭 거행은 이 의식들을 매개하여 고려왕조를 聖化시키는데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고려왕조의 절대다수 구성원인 농민대중의 의식을 왕조에 緊縛시키는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본고의 목적은 고려 왕들이 서경을 순행한 근본적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는 데에 있었다. 여러 면에서 검토한 결과, 태조의 서경정책은 글안의 침입위협에 대한 방비에서였으며, 그 후 고려가 북방지향적 성격을 갖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태조의 서경경영을 왕실배후의 지지세력의 확보라든지 서경의 군사력 동원을 위한 우대조치였다는 측면 등에서 파악한 종래의 견해들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조 이후 현종 때까지 왕들의 西幸도 글안족의 위협이란 대외적 맥락에서 추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0대 靖宗부터 제18대 毅宗까지 순행은 그 성격이 변질되어 다른 양상 즉, 주술적 측면에서 행해졌다. 이 시기에는 글안족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서경은 대북방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서의 의미도 없어지고 그 대신 왕조의 모든 문제점을 서경에 내재했다고 생각된 신비한 靈力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주술성의 중심지로 관념되었다.

결국 고려전기(918-1170)라는 시대상황에서 당시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관념형태인 주술성을 불합리한 것으로 무시하고서는 역대 왕들의 서경순행은 정당하게 평가 내지 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본고를 마친다.

Summary

A Study on the Koryŏ Emperors' Visit to Sŏgyŏng

Chin Young-il

It is the contention of this study that the koryŏ emperors' visit to Sŏgyŏng (the Western Capital) in the former period of Koryŏ(918–1170) was carried out for the needs of the dynastic security which was threatened immediately by the increasing military pressure of the new-risen Khitan to the north, and that the same trip was made as the magic practice in the latter part of the period.

Taejo (r. 918–943), the first emperor of Koryŏ, established Sŏgyŏng as the military base against the menace of the Khitan. And his intention like this was to exert a great influence on the orientation of dynastic policy in the coming generations. Accordingly the premises of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that Taejo constructed Sŏgyŏng as royal power base, and that he treated it with consideration for the military mobilization the region had are to be criticized in this research. From Taejo to the eight Hyŏnjong (r. 1009–1031), the travels to Sŏgyŏng by the emperors were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military circumstances by the north.

But from the tenth emperor, Chongjong (d. 1046) to the eighteenth emperor, Ŭejong (d. 1170) the characteristic of the attendances at Sŏgyŏng by the emperors was transformed because the invading threat of the Khitan had disappeared. After that it was believed that Sŏgyŏng had magic powers to start all things anew in the universe and was used as the sanctuary, namely, the magical center of the dynasty by the emperors so as to gain the holy power. Here if we do not grasp the ideologies which the Koryŏ people held with respect to Sŏgyŏng, we can not appreciate the meaning of the visit to Sŏgyŏng by the rulers of Koryŏ.